



에스겔 16장 음행과 배신

아가

1-3:5 사랑에 빠짐

3:6-5:1 사랑의 연합

5:2-7:10 사랑의 갈등

7:11-8:14 사랑이 자라남

참고도서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WBC 주석, 현대성서주석

에스겔 16장은 민망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야 ‘알아듣는’ 우리네 본성도 참 슬쁩니다.

하나님은 마음 다해 사랑한 <여인>의 배신 앞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심정을 토해내고 계십니다.

관계의 첫 시작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고 계십니다.

<여인>은 출신이 미천했습니다(16:3).

날 때부터 눈 길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아기를 거두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살아 있으라.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으로 누리게 된 소유와 존재, 자존감과 아름다움을

방탕하고 문란한 일에 모두 쏟아 넣습니다.

여기, 저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던집니다.

다른 데 온통 마음을 빼앗긴 여인은 이 일로 인하여

자녀가 죽음에 처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 여인이 너다! >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인이 너다! > 말씀합니다.

우리가 멸시하던 그 모든 단어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는 아니지요’의 모든 주장을 해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다(16:60-63).

회복과 <재결합>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시작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시간과 사건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상처가 회복된 이후에도 흉터는 남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뿐 아니라 남녀의 친밀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 부부, 성적인 친밀감을 하나님의 창조 순리 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가서를 세밀한 부분까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의 풍유적인 <타락>은 실제 세상에서 문자적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묵상하고 음미하며 대화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절정과 정점에 이르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16:23-29).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가치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책임'은 없습니다.
쾌락과 탐욕, 성공과 편리함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세상에서 잉태된 <생명>들이 죽어갑니다(20).
사랑의 대화나 서로에 대한 헌신 등을 순진하거나 바보 같은 일로 여깁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관계의 순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풍성한 친밀감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존중과 존경으로 눈과 눈을 마주하는 대화입니다(1:15).
열등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랑 받는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1:5).
짧은 말 한마디에도 사실과 진실을 담아 상대방을 살어나게 합니다(2:1-2).
참된 사랑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시작과 발전, 깊어짐의 서사가 있습니다(2:3-7).
쉽게 식어버리는 쾌락과 유희가 아니라, 시작과 설렘이 있는 봄의 노래가 흐릅니다(2:10-13).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과 밤이슬을 맞고도 서성이는 간절함이 있습니다(2:9).
낭떠러지 은밀한 곳의 비둘기를 대하듯, 손끝이 닿을까 말까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2:14).
참된 사랑에 방해꾼인 여우는 땅을 파고 포도를 먹어 치우려는 탐욕스런 구애자입니다(2:15).

밤길이 무서운 줄 모르고,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그/여인을 찾아 헤매게 될 때(3:1-3),
우리는 이 사랑에 더 큰 결단을 할 순간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원천인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그/여인과 함께 새로 태어납니다(3:4).
참 사랑에는 몸의 대화가 있습니다(4/7장). 서로가 서로의 몸을 당당하게 응시합니다.
힐긋거리거나 몰래 보는 관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향한 건강한 시선이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시각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적인 성적 이미지가 난무한 세상에서
아가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답고 풍요로운 성적 심상들을 보여줍니다.
신체 각 부위를 천천히 살피고 음미하는 모든 단계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몸 곳곳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참 사랑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회복을 위해 최악의 위험까지 감수하려 합니다(5장).
관계는 애뜻하고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조정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둘 사이의 회복으로 다져진 관계는 더욱 견고하며 끈끈한 관계로 결합됩니다(8:6-8).
오롯이 두 사람이 견뎌낸 과정들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인 사랑(6:9)이라고 서로를 고백하게 됩니다.